



우수 어촌체험마을 운영리더와 함께 한 선진지 견학

## 他海之樂!

# 수산업과 관광의 접목을 보고 오다



송영택 | 한국어촌어항협회 바다케팅실장

### 들어가며

9월 10일 아침 6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이른 시간이었지만 출국을 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에 제주도를 포함 전국의 연안에서 모인 어업인과 공무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 견학에는 '2011년 우수 어촌체험마을 선정대회'에서 수상한 마을의 운영리더 16명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 공민 2명, 충청남도 서천군 공무원 1명, 인솔과 지원을 맡은 나를 포함 총 19명 여행길에 나섰다. 기간은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4박 5일로 일본 시코쿠 지역과 긴기 지역을 둘러보며 최근 국내에서 떠오르고 있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참고하고 배워볼 만한 사항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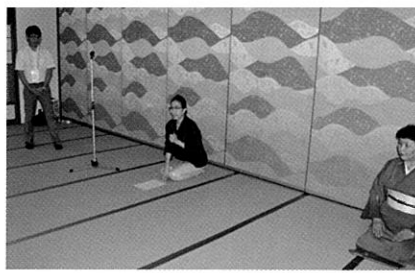
### 견학 1일차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일본 큐슈의 후쿠오카공항에 도착하여 4박5일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도착한 후쿠오카와 우리가 첫 번째로 견학의 대상지로 꼽은 시코쿠 지역은 신칸센 열차를 타고 2시간 가량 이동하고 또 차량으로 2시간을 더 가야하는 먼 거리의 여정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긴 일정을 마치고 도착한 첫 번째 방문지는 가가와현(香川縣) 고토히라(琴平町) 료칸(旅館)이었다.

일본의 료칸은 보통 전통과 격식을 갖추고 100년 이상된 오래된 여관을 말하는데 지역 특산 요리와 정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인, 묵객 또는 당대의 저명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또 건물자체나 가재도구들이 귀중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아 문화재로 지정받은 곳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카단료칸(花壇 旅館)은 완전 전통료칸이라기 보다는 최근 리모델링을 하여 편의성을 높인 퓨전식 료칸이라고 해야할 것 같았다.



▲ 료칸 오카미상 三好와의 간담회



▲ 주차장까지 마중나와 안내하는 료칸직원

1620년 영업을 시작을 하여 19대째 운영중으로 지역에서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료칸의 총지배인 격인 오카미상(女將)의 브리핑을 시작으로 식사와 숙박 등을 체계적 관리를 살펴보았다. 직원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교육은 하지 않으나 그들만의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단순히 정형화된 호텔식 서비스가 아니라 친절과 정 그리고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전통의상(기모노)을 입고 주차장 앞까지 마중을 나왔으며, 식사를 할 때도 무릎을 꿇고 옆에서 대기를 하다 시중을 드는가 하면, 조금의 불편함을 표시해도 즉각 응대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참가자 중 누가 말했지만 ‘제대로 대접 받는 느낌’의 서비스가 시작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 견학 2일차

료칸에서의 기분좋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난후 본격적인 일본에서의 견학이 시작되었다.

2번째 견학지는 가가와현의 나오시마(直島町). 나오시마는 일본 혼슈와 시코쿠 사이에 있는 세토나िका이에 위치한 작은섬으로 건축물, 조각, 현대예술 전시품 등 유명 예술품이 많은 곳으로 일반인들에게 최근에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나오시마는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나오시마는 1970년대 이후 인구 감소 등 섬 전체가 침체에 빠지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등을 받아들이면서 ‘에코 아일랜드 나오시마 플랜’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1980년 대 이후에는 일본의 민간기업인 ‘베네세 그룹’에서 직접 투자하여 섬 전체를 예술의 마을로 재건시켰다. 2010년에는 ‘세토우치국제예술제’가 개최되어 30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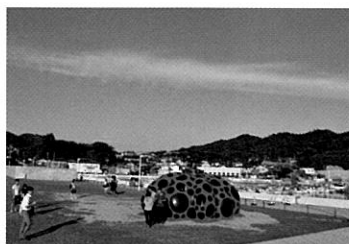
이로서 나오시마는 자연과 문화와 환경의 섬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지역 개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다. 특히 우리 견학단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에(家)프로젝트였다. 이에 프로젝트는 주택가의 빈집을 활용하는 상설 예술 프로젝트로 방치된 빈집을 베네세 그룹에서 구입하여 예술가들이 새로운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지역주민과 유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가하면 또는 주민 민가를 화장실을 제공하거나 아예 주민들이 예술 작품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명패나 담장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견학단에 눈에는 마을 전체가 활력에 차있고 아름다웠고 청결하였다. 약간의 불편함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하였다.



▲ 빈집을 활용하는 이에(家)프로젝트



▲ 어항 구내 예술작품을 설치한 사례



▲ 나오시마정 공무원과 면담



▲ 아와지시마 민속 주민 하타다씨의 면담

그동안 우리의 어촌개발사업이 관주도로 소득증대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이곳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문화, 환경, 교육 등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이 보기 좋았다. 또 개발방식에서도 민간투자를 적극 수용하여 발전시킨 것이 눈에 띄었다.

마을을 둘러본 후 나오시마정 사무소를 둘러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이 이어졌는데 이들도 갑자기 년 300만명의 관광객이 밀려오자 상당히 당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나오시마를 나와 늦은 밤까지 효고현(兵庫縣) 아와지사마(淡路島)로 이동하였다.

여행 2일째 잠은 어업인이 운영하는 민숙(우리나라의 민박)을 하였다. 첫째날 료칸과는 달리 화장실과 세면장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리가 머문 요케마루(陽惠丸)라는 민숙은 어업체협과 숙박을 동시에 제공하며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즉,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다보니 신선한 수산물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대도시에서 식도락가들이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고 했다. 주인인 하타다씨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도시인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자부심으로 민숙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견학 3일차

3일차는 아와지시마 일대의 어촌해양 관광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와지시마는 시고쿠와 혼슈의 긴기지방(고베, 오사카 지역)을 잇는 세토나이카이 동부에 위치한 세토나이카이에서 가장 큰 섬으로 농어업이 발달한 섬이었다. 이 섬으로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라고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주요 관광프로그램들이 자연자원인 바다와 산과 산업자원인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어업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역 수산물 소비증대에 초점을 맞춰 관광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주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낚시배, 후릿그물, 정지망, 쓰레그물, 자망체험 등 어업체험이 있었으며 생선다루기, 낚시공원 등도 있었다.

어업체험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순수하게 어업인 주도로 진행되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홍보 정도일 뿐이었다.

어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어업협동조합, 어업인, 수산회사 등 다양한 형태였다. 이외에도 자연자원을 활용한 탐조선(探潮船), 해양레저 사업 등은 민간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고 있었다.



▲ 탐조선 승선 체험



▲ 아와지시마관광협회 사무국장과의 간담회

### 견학 4일차

4일차부터는 혼슈의 긴기지방(효고현, 오사카)에서 진행되었다. 4일차 방문지는 효고현 고베시에서 운영하는 낚시공원과 생선학교였다.



▲ 낚시공원에서의 낚시체험



▲ 매점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운영

생선학교는 고베시가 매립 조성한 마린피아고베지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마린피아고베지구의 일부는 미쯔이그룹에서의 아울렛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시설은 어업인과 일반 시민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어식문화를 강화하여 고베시 어업진흥에 도움을 주고자 활용하고 있었다.

이 중 주요 시설이 생선학교였다. 생선학교에는 전시학습실, 원형수조, 연수실, 임해 휴양광장, 해양목장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어업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소금만들기, 마른김만들기, 바다은혜체험, 바다낚시체험, 지인망체험, 후릿그물체험, 회화콘테스트, 피시아트콘테스트 등이 있었다.

견학단은 이중 소금만들기 체험을 해 보았는데 아주 손쉬우면서도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촌체험마을에도 당장 응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졌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베시에서 지역 어업 진흥을 위한 시의 배려를 묻어나 있었는데 도심 속 어촌시설이 현대적 상업시설과도 꽤 잘 어울릴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들 두 곳은 고베시 산하 (재)고베미노리공사 해변사업부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스마(須磨)바다낚시공원. 이 바다낚시공원 1976년 약 200억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연간 이용자는 2010년 기준 72,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낚시공원 운영의 목적은 어업과 유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산자원 배양, 해양환경보호 캠페인 전개를 통하여 어업인과 시민과의 조화와 소통의 공간을 창조하는데 있다고 한다.

다양한 고객관리 프로그램과 수익사업 등을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요내용은 낚시대회, 바다낚시교실, 치어방류체험, 각종 추첨회 등의 이벤트와 스탬프 카드, 포인트 카드, 낚시동호회 회원 서비스, 키즈클럽 회원 서비스 등 고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견학단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동선관리, 고객관리 방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낚시공원에서의 낚시체험매점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운영함)

다음은 역시 (재)고베미노리공사 해변사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선학교를 방문하였다.



▲ 소금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견학단



▲ 생선학교 앞 단체사진



▲ 어업체험을 하고 있는 견학단



▲ 바비큐장에서 식사를 하는 견학단

또 지역의 어업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음도 확인하였다.

### 견학 5일차

한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간사히국제공항이 있는 오사카에서 마지막 견학을 하였다.

우리가 찾은 곳은 오사카부(大阪府) 센난군(泉南郡) 타지리정(田尻町) 타지리어업협동조합을 찾았다. 이곳은 간사이 공항 매립으로 어업권 어장이 반감하고 자연해변 감소로 어업의 위기에 처하자 타지리어항을 중심으로 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어촌관광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특히 일본의 수산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어항 활용 추진’의 취지에 잘 맞는 사례로 소개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타지리어업협동조합은 크게 5개의 어촌관광 사업을 1991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우리나라 어촌체험마을에 접목시킬 만 한 것들이 많을 듯 하였다.

1991년 수산물가공사업을 시장으로 조합원 35명이 정부의 지원 없이 직접출자하거나 은행대출을 통해 어촌관광 사업에 뛰어들었다. 1994년 주말아침시장을 개설하고 1996년부터는 정치망, 자망체험 등 어업체험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간사히 공항의 이착륙을 볼 수 있는 체험도 패키지로 만들었다. 어업을 빼앗아간 간사히 공항을 소득으로 활용한 사례였다. 1996년부터 마리나 사업과 수상바이크 사업도 진행하여 2005년 국토성으로부터 우미노에끼(海の驛)로 지정을 받았다.

2000년부터는 100명 수용 규모의 바다낚시터도 운영하고 있어 수익을 다양화하였다. 이와함께 해산물 바비큐 장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바로 생선을 손질, 조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 마치며

이상으로 일본에서의 어촌체험마을 운영리더들과 한 4박5일간의 견학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일본의 어촌 현실과 우리의 그것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것으로 많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로 정리해 보자면 ‘고객밀착형 서비스’, ‘환경과 예술을 결합한 지역개발’, ‘관에 의지하지 않는 지역주민’, ‘수산업과 관광의 접목’,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배려’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일본의 어업인들도 어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지하기보다는 어업인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他海之樂! 이번 연수에서 일본의 어촌관광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어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점검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